

내외 소식

틸 선교부장, 서울특별시시장 예방

지난 1월 23일 선교부장은 서울 시청으로 구 자춘 서울 시장님을 예방, 서울시에서 발표할 가정 주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가정 주간에 갖게 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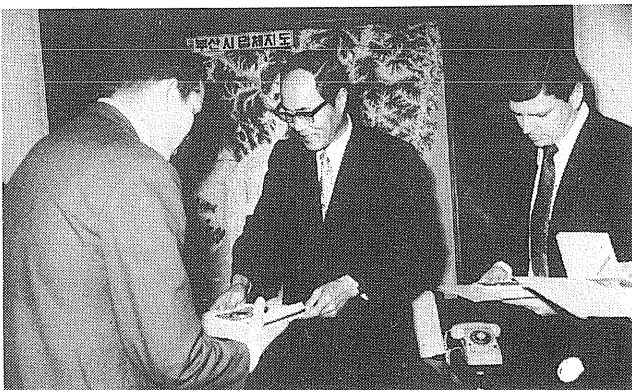
사진은 구 서울 시장님과 함께한 틸 선교부장.



틸 선교부장, 부산 시장 예방

지난 3월 8일 선교부장은 부산 시청으로 박 용수 부산 시장님을 방문 가정의 중요성과 교회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 및 부산 가정 주간 설정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 박 시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틸 선교부장.



선교부, 지방부장 훈련 세미나 갖다

3월 14, 15일 양일간 한국 서울 선교부 주최로 지방부장 훈련 세미나가 선교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선교부 산하 5개의 지방부에서 지방부장인 이 용상, 윤 화중, 박 병규, 최 갑수, 배 영천 지방부장과 5명의 서기가 참석하여 훌륭한 모임을 가졌다.

틸 선교부장은 이 모임이 지금까지 참석한 어느 모임보다도 영적인 모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한국 교회 지도자의 자녀들이 장차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 사업을 펼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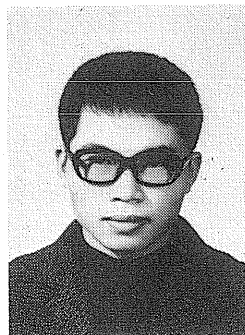
교육은 선교부장단의 3명과 선교부 서기가 맡았으며, 권능선, 위임의 원리, 재정 관리, 동기 부여, 교회 지도자 훈련, 매일의 경전 연구, 서기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토요일인 15일 오후 6시부터 1시간동안 가진 간증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임이 되었으며 틸 선교부장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간증을 드렸다.

지방부장들은 세미나를 준비한 선교부장단에게 감사를 드렸고, 선교부장단은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얻은 지방부장과 서기는 지방부 회원이 모두 승영에 이르도록 이끌것을 다짐하고 모임을 끝마쳤다.

이 준구 형제, 수석 졸업



지난 2월 18일 서라벌 예술 대학교 초급 대학 공예과를 졸업한 이 준구 형제는 그의 훌륭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평점 4(평균 A학점), 96점이라는 보기드문 성적으로 수석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4와드 소속인 이 형제는 스테이크의 모든 포스타를 혼자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봉사를 하고있다.

그는 현재 대경산업에 근무중이다.

함 병춘 주미 대사, 브리감 영 대학 방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주미대사 함 병춘 박사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을 방문하고 “한국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위기, 계속성 및 변천”에 관한 연제로 강연하였다.

또한 그 대학 법과 학생들에게는 미국과 한국의 정의의 체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하고 한미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는 한국의 해외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함 대사 부부는 브리감 영 대학에 재학 중인 13명의 한국 학생들이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이 만찬회에는 브리감 영 대학, 유타 대학, 유타 주립대학 교수, 유타주 한국인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화기 애매한 담소를 나누었다.

함 대사는 브리감 영 대학을 방문하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가정 생활에 중점을 두고 항상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며 담배와 술 등을 하지 않는 건전한 생활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함 대사 부부는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버나클 합창단이 공연을 갖는 태버나클도 돌아 보았다. 교회의 전 세계 지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판장을 예방하였다.



1975. 5. 4~5. 11

가정 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 한국 서울 선교부 ❖

—서울 특별시 주관 행사에 적극 협조—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는 서울 특별시와 함께 가정 주간을 맞아 펼치고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갖는 주요 행사를 보면 모범 가정 선발 대회, 연예인 축구 경기, 가정 봉사의 날, 서울 시립 교향악단 자선 공연, 강연, 어린이 날 행진 등이 있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모범 가정 선발 대회를 갖는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참가 희망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구청 담당 사무실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의 간단한 역사(가족 사진 포함), 가족의 중요 활동상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서울 선교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기 지방대회 개최

2월 9일 개최된 경기 지방 대회에서 정 유진 인천 지부장이 해임되었다.

지방부장단 보좌로 봉사해 오던 허 채 형제가 새로 인천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 형제는 최 상혁 전 지부장의 뒤를 이어 약 반년 동안 주님의 일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했다.

허 지부장은 선교사들이 인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데 크게 공헌한 바 있다.

틸 선교부장은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라는 김볼 대판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지방부 회원의 1퍼센트를 선교사로 보내도록 강조하였다.

현재 경기 지방부 회원으로는 문 호철 장로(인천 지부)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6 와드, 와드 대회 갖다

지난 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제 6와드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과 많은 회원,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와드 대회가 개최되었다.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박 병업 감독의 감리로 열린 아론 신권 및 청녀회 대회에서는 인형극을 위시하여 나형선 형제의 인디언 춤, 라디오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평소에 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9일, 안식일에 있었던 스테이크 부장단의 영적인 말씀은 참석한 200여 성도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신학 연구원 입학식 갖다

신학 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30분 '7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재학생 개강식을 이 호남 원장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신 가운데 가졌다.

이 호남 원장님은 이날 환영사에서 신학 연구원의 교훈인『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고 하신 경전 귀절을 인용, 신학 연구원의 필요성과 말일성도 경전의 위대성을 학생들에게 재인식시키고 신학 연구원의 건립 이념을 고취시켰다.

신학 연구원 주최

제 1 회 동계 빙상 경기 대회 개최

지난 1월 28일 창동 스케이트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신학 연구원의 재학생 및 교회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한 스케이트 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 종목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및 리레이 등이 있었으며 최고상인 종합 우승은 8와드가 차지하였다.

종목별로는 단거리에 신촌 지부의 이 두영 형제와 8와드의 박 순호 자매가, 중거리에 신촌 지부의 이 두영 형제가, 장거리에는 8와드의 허 정호 형제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신촌 지부, 건축 한창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신촌 지부, 신축 부지에는 매일 여러명의 회원들이 나와 지부 건축을 돕고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햇빛 속에서 땅을 파고 혹한 속에서 부록크를 운반하여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놓인 건물을 보는 지부 회원들의 마음을 마냥 흐뭇하기만 하다.

곧 완공될 예정인 현 신축 건물은 75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더 많은 형제.자매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본 건물은 1층과 2층을 합쳐 100평이다.

이 길웅 형제, 5 개 면허 획득 보도

현재 광주 지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 1 보좌로 수고하고 계시는 60노장의 이 길웅 형제가 2년만에 5개의 면허를 획득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화기를 20여년간 다루어온 그는 소화기를 좀더 완전하게 제작, 취급하여 제 2의 불침번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소견을 말하고 있다.



벽제 지역 개설, “첫 모임 갖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에 새로운 지역을 개설하고 3월 9일 첫 예배를 가졌다.

선교부장단 박 재암 형제의 감리로 시작된 이날 첫 모임에는 그동안 지역 개설을 위해 애쓴 선교사와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 김 산 형제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120여명의 지역 시민과 어린이가 참석하였다. 이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원이 참석하여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

모임을 마친 후 기념 촬영과 다과회가 베풀어졌다.



이 수진 자매, 음악 예술 대회에서 최 우수상 획득

지난 2월 23일 경희 대학교 음악 대학 국민 정서 교육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전국 학생 음악 예술 대회에서 제 5와드 소속 이 창빈 형제의 장녀 이 수진 자매가 피아노 부문에서 그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물론 자매로서 훌륭한 재능을 발휘한 이 자매는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자매의 아버지인 이 창빈 형제는 현재 도봉구 미아 10동에 위치한 미아 성모 병원 원장이다.

